말씀제목: 치유는 언약으로
말씀구절: 창12:1-3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들어가는 말씀

오늘도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 언약이 내 안에 각인 되어지면 치유가 나타날것이다. 틀림이 없다. 우리가 생명걸어야 할곳 딱 한곳이다. 언약이 내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된다.

그러면 기도제목도 하나뿐이것이다. 그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되기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것이다. 오늘 말씀은 아블라함에 대한것인데 믿음이 계속 성장해가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되어진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들을 진짜로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진짜로 하니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예가 된다.

서론
1) 우리는 성경대로 다 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기에 그렇다. 언약대로 해야 한다. 언약을 잡고 살아야 한다. 당연하다 그리고 근본문제에서 해방된다. 원죄에 머리를 깨야 한다. 어디있느냐니까 언약을 누리는데에 있다. 일단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경구절을 계속 고백을 하면 이것이 나타난다. 언약은 완성되었기에 남은것은 기도라는것은 누구든지 인정한다. 그러면 이제 죽어라고 기도해야 하는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안되도록 사단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
2) 그래서 언약을 잡고 넘어설것이있다.
(1) 불신앙이다.언약을 딱 잡고 살아야지 불신앙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 대개 어렵던지 힘들지 하면 불신앙한다.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빨리 돌아서야 한다. 항상 언약을 잡고 있어야 한다
(2) 제일 많은것이 사람이다. 그중에서도 사람의 말이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사람이 하는 말에 잡혀서 평생 가는 사람도 있다. 그리 할 필요없다. 그건 그 사람의 말에 불과하다. 우리가 살다보면 진짜 마음에 안드는 사람도 있잖은가? 그 사람들이 한 소리가 평생 가는 경우가 있다. 그리 할필요없다.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되고 내한테 절대 도움이 안된다.
(3) 이런 저런 환경들이 있다. 나는 가정 사정이 직장이 경제 기타등등 많이 있다. 넘어서야 한다.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된다. 거기에 잡혀있다고 해결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영적문제가 하나 더 생긴다.
(4) 이 모든것 안에 뒤에 항상 사단이 있다. 전부 영적인 문제이다. 어떻게 넘어서야 할것인가 – 언약을 계속 누리고 고백을 해야 한다. 여러분 다 하고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번주 본문중에 마음에 들어온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라. 복음을 알고

난뒤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복음 모를때는 말씀잡고 기도한다는 말이 잘 없었다.

본론 – 성경을 바로 보면

1. 언약만 바로 잡으면 된다는 내용이 많다.
1)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이 상당히 성장을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만큼 거기에 도달을 했다. 과정을 딱 보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하면된다.
2)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언약을 딱 잡아라 – 우리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주세요 하면 그대로 된다.
3) 아브라함은 항상 무슨일이 있어도 단을 쌓았다. 우리도 이것을 해야 한다. 자기가 하면된다.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면 된다. 진짜 고백하면 더 좋다.
4) 아들이 없어서 웃기도 하고 그랬지만 로마서 공부할때 봤잖은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때도 믿음이 있었다고 본다. 창17장에 할례를 이야기 하고있다. 그때도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안 믿었었다. 그런데 하나님떠나가신 이후에 그날 바로 할례를 행하였다. 불신앙 있어도 그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것은 한 사람이다. 놀랍다.우리도 다 이리하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 불만 많습니다 해도 하라는것은 하잖은가? 그거 아주귀한것이다. 하나님 진짜 마음에 안든다고 말할수있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된다. 언약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라. 단을 계속 쌓으라. 이것은 뱀의 머리를 깨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언약기도 쓰고 있는 사람있지만 꼭 그거 아니더라도 성경에 많이 있으니 복음을 찾아내서 하면된다. 언약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근본문제 원죄, 그리스도 결과 이래서 구조를 요약을 했단말이다.이렇게해서 강조를 하는것뿐이다. 여하튼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된 말씀을 딱 하면된다. 그리고 힘들어도 순종하시라. 하나님이 하라는대로 하면 그게 나에게 득이 된다. 다른것은 득되는게 하나도 없다.

2.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1) 애굽에 갔을때 겁이나서 거짓말했다 그래도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다.
2) 창14장 멜기세댁이 나타났다 하나님이시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것이다. 당연히 소돔고모라에서 전쟁이 났을때 가병 318병이 가서 데리고 온것이다. 하나님 나라이다.
3) 창15장에는 무슨말인가 쪼갠 짐승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셨다.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것이다. 쪼갠 고기 사이 피사이로지나간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것이다.
4) 창21장 100세에 아들이 낳았을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것이다. 언약을 잡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라 이것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생의 언약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 가졌다 근본언약 인생 언약이 뭐냐 가나안땅 가라고 한것이다. 이 두가지가 있으면된다. 전부 다 그렇다 요셉은 창1장 부터 자기 아버지까지의 역사를 전부 외우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가 대를 이어 내려가서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해내려가 모세가 기록한것이 창세기이다. 꿈으로 세계복음화 언약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남미 끝까지, 미국끝까지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다. 언약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영적인 힘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렇게 딱 되어진다. 단 쌓는게 힘들고 잘 안된다 왜? 하나님 막았나 내가 막았나? 사단이 막았다 안그런가? 단 쌓기 싫고 잠자고 쉽다. 그게 영적문제다. 이것 진짜 언약되버리면 영적문제 딱 무너져버린다. 정복해버린다. 항상 이야기는 한가지이다. 류목사님 메시지중 기도를 강조하는데 언약은 되었다고 보고 기도를

강조하신것이다. 옛날에는 언약 죽어라고 강조하셨다. 이제는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죽어라고 강조하는것이다. 우리는 가장 기초언약이다. 그리고 가장 기초 기도 이야기 한다 그게 뭔가 답- 단을 쌓고 말씀가지고 고백하라, 그런데 진짜 기초이다. 출발이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된다는것이다. 생각해보시기를 바란다. 뭐가 필요하냐면 내안에 언약이 되어져 버린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되어 버리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느끼는것은 정복이다. 그리 되어지면 완전한 사람은 없다 여기에 대하여서 그렇다. 그런데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정복한것이다. 완전하지는 않다 그런데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정복했다는것은 분명하다. 이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절대망대로바뀐것이다.

3. 절대 망대가 되어버린다. – 그러니까 애를 죽여도 살릴것이라는 믿음이 생긴것이라서 진짜 죽이려고 한것이다 우리가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지 이웃이 그렇다면 미쳤다고 말할것이다. 그런데 그게 진짜 있기때문에 상황을 진짜로 정복한것이다. 정말로 불신앙은 내게 대하여 조금도 영향을 못미친다. 인간의 소리, 환경이 뭐 어쩌고 무슨 상관인가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하나님능력을 체험을 했는데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절대 망대에 맞게 응답을 주셨는데
1) 수양이다. – 대신 죽을 수양이다.아이를 묶을때는 안보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신후에야 보인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꼭 같이 수양, 하나님이 보내신것이다. 금방 없었는데 바로 보내신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대 망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100%정복해버린다. 불신앙은 하나도 안일어난다. 문제와도 눈 하나 깜빡안한다. 사람들이 무슨소리를 해도 아무 필요없다. 그게 절대 망대이다. 절대 망대는 절대 권세, 절대 능력이다. 그다음에 이야기 했다.
2) 창22장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절대 망대는 확실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3) 창22:17 대적의 문을 연다. 대적의 성을 얻을 것이다 정복이다. 불신앙 사단 다 깨버린다. 사람이 한번씩 가다가 불신앙 올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옛날과 지금과 비교하면 전에는 하루 갔다면 지금은 5-10분이면 끝이다. 그게 정상이다 안그런가? 불신앙이라는것은 괜히 나혼자서 야단을 치는것이다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는데 지가 죽는다고 난리치는게 불신앙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하나님은 아무관계없는데 저그가 죽는다고 난리치는것이다.
4) 여하튼 다 필요없고 이것이 그리스도이다. 절대망대이다. 언약되기를 바란다.

결론 – 내하고 하나님하고 1:1이다. 다른사람 말할것 없다.
1. 언약이 뿌리른 내리는 시간이다. (말씀들으면서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들어가고 – 가장 중요한 단어 마음을 진심으로 )기도도 막하는게 아니고 진짜 마음을 담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그래서 눈이 딱 열리는것이다.
2.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는것이다. – 영원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 진짜 뿌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절대 자리를 가지고 있는 망대가 되는것이다. 우리 자꾸만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우리가 다 이길을 누구든지 다 가고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되고 절대로 중단 안한다 중단은 없다 말씀듣고 기도하고 잘하나 못하나 상관없이 발버둥 치고 있으면 응답은 온다. 왜냐면 하나님 소원이니까 우리는 전세계 0.1%이다. 복음 누가 알고 있는지 밖에 나가 정검을 해보라. 주일날 선교 갈것인데 전도자 모임때 이야기 했지만 이번에 의미있는것은 한 교단과 연결이 될것 같다. 기도하시라. 리카라과의 교단 총회를 하는데 250-300명이 모인다고하더라. 거기에 리카르도 목사가 메인 스피커로 가니 상당한 역활을 할것이다. 거기에 시미밸리에 있는 목사가 참여하는데 이분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이 복음운동에 교회가 들어온다면 미국에

중요한 문이 될것이다. 엘살바도르에는 이번에,... 전에도 간적이있는데 이분은 여기서 마쯔다 목사를 통해서 만났던 목사인데 코리아 타운에서는 신사던데 가보니 완전히 신비주의 하더라 놀라웠다. 이번에 연결된 하이메 목사인데 성경공부에 늘 들어오고 함께 복음운동 하는 분과 연결이 되어 오게 된분이다. 그중에 주위에 있는 다른 목사들도 연결이 되었는데 그중에 한 목사가 연결이 되어 교회를 오픈한것이다. 리카라과 노엘목사님 중심으로 하게되었다. 조금 더 중심이 되고 있는것 같다. 2022년도에 에스텔리 리콰라가에서 컨퍼런스 할때 메시지 들었는데 몇년쉬다가 다시 나타났다. 이스라엘 목사를 메인 스피커로 모시고 5명이 팀이되었다 이분들이 엘살바도르에가서 문을 연것이다 이분들이 곧 올스케엇 디나매이션 사역을 마치고 엘살바도르 가는 사역 빈시간에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들어갈것이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이다. 훈련을 받는다는것은 눈이 열린다는것을 말한다. 눈이 열리면 사람이 말이 달라지고 사역자는 메시지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기에 인생이 달라진다.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진다는것이다. 오늘 이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3. 오늘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응답받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진짜 문제 해결도 되고 내 인생, 가정, 전도와 선교도 살아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란다.

기도

하나님 오늘도 귀중한 말씀을 주셨으니 언약이 되게 하시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결국 절대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불신앙을 정복하여 모든 사람과 세상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모든 환경과 사단의 역사를 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축복해 주실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